

OG10 전통정주지의 건전성과 지속성 사고 그리고 Community Design

신상섭*, 노재현

우석대학교 이공대학 조경학과

1. 서 론

과학기술의 계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분쟁과 개발도상국의 진보주의 및 인구증가와 도시팽창 등으로 야기된 자원고갈 및 환경문제 등은 가속적인 성장의 한계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 자연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위기 의식은 1987년 “브르트란드 보고서”를 통해서 ‘미래세대의 필요를 손상시킴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즉, ESSD의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은 1972년 스톡홀름의 인간 환경에 관한 유엔선언에서 촉발되어 1992년 리우환경회의,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를 거쳐 Istanbul+5, Rio+10회의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추구된 목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엔인간정주회의(UNCHS)는 범세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계획지표 및 계획기준을 정립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도 자국의 배경과 형편에 맞게 지속가능한 정주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전통정주지가 오랜 세월 동안 주변 환경이나 생태계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동체를 지속해온 사실에 주목하여 전통정주지의 지속가능한 요소를 현대적으로 응용하려는 경향, 즉 환경친화적인 공간구조를 추구하면서 건전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신전통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읍성, 마을로 대표되는 우리의 전통정주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하나의 살림집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집합적인 삶터로서의 교훈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살림집들은 마을의 전체구조와 유기적으로 엮여지며, 구불구불한 아름다운 길들은 개인의 재산권과 공동체적 편리성이 타협한 결과가 되고, 정자와 재실, 또는 큰 정자나무의 그늘이 있어서 공동체적 장소를 제공한다.

정주지 경영에 살만한 땅 즉, 樂土와 生土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연환경 조건에 순응하는 공간관 그리고 土地觀을 견지하면서 장소 변형적 사고를 可居地 경영의 틀로 삼아 왔는데, 전통정주지는 오늘날까지 마을 공동체 질서와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본 연구는 정주지에 반영된 지속성과 건전성의 원칙들을 조사, 분석하여 삶터 경영과 관련한 현대적 계승을 위한 개념적 모델을 추출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통계승과 관련한 건전성 기법의 연구성과 추출은 물론 지속가능한 토속경관, 환경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성과의 당위성을 부여코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고찰

전통정주지인 읍성과 마을의 공간구성 그리고 자리잡기에는 ‘인간과 자연의 합일’이라는 우주관과 卜居觀에 따라 좋은 자리를 찾고 샅터를 조성하였는바, 안정된 샅터를 경영하여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정신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커뮤니티의 공간조성 기법이 발견된다. 특히, 환경적으로 불리한 지형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노력을 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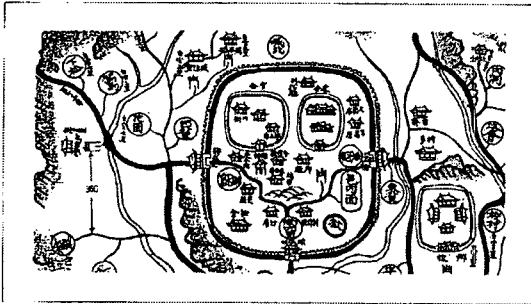


그림 1. 낙안읍성의 고지도인 樂安圖, 규장각소장 자료

으로써 바람직한 주거지를 만든 마을들에서 선인들의 지혜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정주지에 반영된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환경설계 원리들을 조사,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샅터의 개념적 모델을 추출코자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형적 유산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민속마을로 지정된 정주지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정리된 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건전성과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는 Manchester 2020의 준거기준인 사회적 건전성,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건전성 그리고 한국의 전통지역이론인 이중환 저술 擇里志에서 제시한 卜居總論의 패러다임인 地理(자연 : 水理, 野勢, 山形, 山水), 生利(경제 : 土壤, 貿遷, 關防), 山水(환경 : 治山, 治水, 裨補), 人心(사회 : 風俗, 建置, 營建, 林園)을 주요 이슈로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계획원칙의 추출과 같은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문화적 중층성과 다의성을 지닌 정주지의 입지, 영역, 구성요소와 관련된 문화생태적인 측면 등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성요소를 연역적으로 검증코자 하였다.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주위환경과 산의 흐름, 안정된 물길을 갖추면서 단조롭지 않는 산수진경한 길처에 유·무형의 문화환경 요소들을 토지수용력 범위에서 접속시킨 자족적 샅터가 되는 전통정주지는 자연에 대한 절제와 환경자원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즉, 背山臨水+藏風得水하는 터전으로 배후지, 주거지, 경작지를 설정하여 신앙요소와 사회제도·규범 등을 결합시켜 샅터 조성의 틀로 활용하였다. 鑛山을 축으로 背山한 좌우의 산세에 물길을 갖춘 마을은 자연지형 또는 성곽으로 영역을 확보하고, 수자원의 활용과 마을숲 등에 의한 환경조절기능을 담고 있는데, 수목, 농경지, 녹지 등과 결합됨으로써 생물이 공생하는 친환경공간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토지이용으로 하천과 경작지, 마을숲과 뒷산, 노거수와 조경수, 텃밭, 수로, 뜰과 담 등 水木石이 어우러진 점적, 선적, 면적 생태통로가 구축되었다. 특히, 자연녹지축에 생태적 수용력이 반영된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마을숲과 인공수로 등 생물서식처 조성, 마을 뒷산과 같은 방풍·환경림의 경

영, 자연에너지의 활용과 미기후 고려, 자원 재활용 등 낮은 entropy 체계를 반영하였다.

적절한 수용력 범위에서 무리한 땅깎기와 흙 돋우기 등의 지형조작 없이 완경사지에 조성된 정주공간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조영물 자체가 광역경관의 구성요소로 작용되고 환경적 일체감을 형성하며, 풍부하면서도 넓은 사적외부공간의 창출은 물론 조망권이 자연스럽게 확보됨으로 해서 적정 주거생활 밀도와 인동간격의 유지, 커뮤니티 형성과 프라이버시 확보, 일조와 조망 그리고 통풍 등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하는 장승과 솟대, 당목을 두어 매년 정월대보름날 장승제와 당제를 열고,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정초에 농악대가 마을을 돌며 지신밟기하는 12마당농악놀이, 큰줄다리기놀이. 음력 7월 백중날 일꾼들을 격려하며 힘겨루기하던 놀이, 기우제와 노동요 등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지속성을 모색하는 민속신앙과 놀이문화가 전승되는바, 이러한 사회적 지속성 양상들은 신앙과 경관이 접속되는 문화경관으로 표출된다.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축에 삶을 접속시켜 생태경관+생태마을의 네트워크체계가 구축되는바, 진경관+상징경관+인조경관을 통합하여 內庭+外庭, 內園+外園, 內苑+外苑이 접합된 全景觀이 구축되었다. 안정된 조망과 경관관찰점 경영, 지표경관요소의 설정, 수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한 수경연출기법, 실용적 가치기준에 심미성, 상징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조경기법 등 공간에 활력을 주고 감흥을 유발시키는 아름다운 향토적 토속경관상을 구축하였다.

즉 '인간과 자연의 합일공간'이라는 생태적 네트워크를 구축(天+地+人, 山+水+方位+사람, 地理+生利+山水+人心)하면서 복거관에 따라 좋은 자리(최적지, 차적지, 적지의 순차적 확장)를 찾았고 자연정취를 연결시켜 유기적 미학공간인 정주지를 완성하였는바, 실존공간+풍류공간+성역공간을 결합하여 이웃과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된 삶터(토지수용력+생태환경=자족적 공동체)를 경영하였고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정신세계로 확장시키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적 커뮤니티 디자인 기법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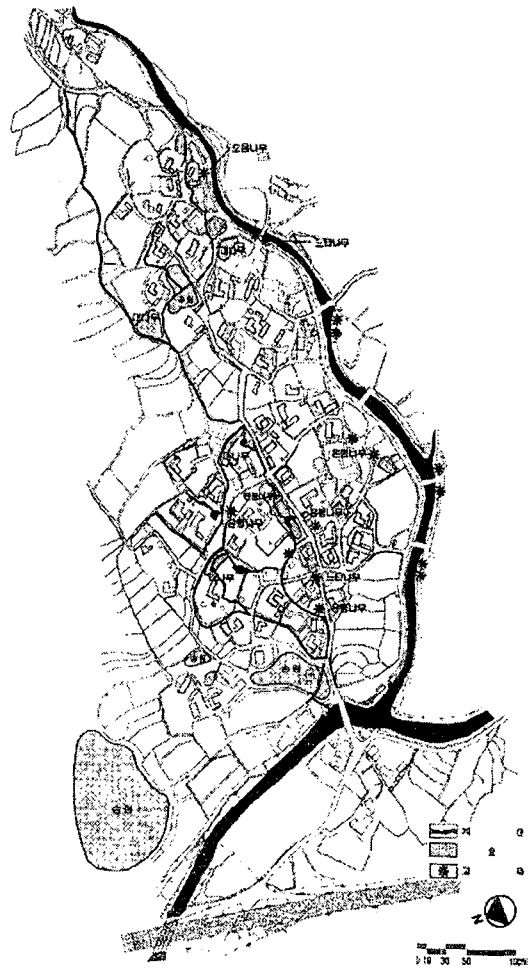


그림 2. 외암마을의 배치평면도,
자료 : 한필원, 2003

표 1. 전통정주지 환경설계에 반영된 지속성과 건전성

구 분	전통정주지 환경설계에 반영된 지속성과 건전성
토지이용과 동선	<p>*행정, 교통, 군사적 요충지로 풍수적 국면을 고려한 진산의 설정, 背山臨水+藏風得水 국면,</p> <p>*관아시설과 주거지, 경작지, 배후지를 갖추며 지리와 생리, 인심과 산수가 결합된 卜居地</p> <p>*토지수용력이 반영된 신앙의례시설(장승과 솟대, 堂과 堂木, 효자·열녀비, 선정비, 壇과 향교, 묘자리 등), 교육시설(서원, 향교, 서당), 휴식시설(정자, 정자목, 마을숲, 뒷동산, 연못 등), 행정 관아시설(객사, 아사, 동헌, 향청, 성곽 등), 생활시설(살림집, 우물, 빨래터, 마을마당, 마을길, 문전담 등), 시장 등 위계와 영역, 장소성을 고려한 조영물</p> <p>*어귀길(고갯길), 동구(읍성과 마을입구 : 정자목, 장승, 성황당, 효자·열녀비, 선정비, 향교 등), 안길(우물, 빨래터), 골목길(막다른길) 등 물길과 연계되어 주동선과 보조동선으로 분절</p>
경관생태	<p>*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자리잡기 및 살림집의 좌향 등 친환경적 공간(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쾌적한 환경), 미기후의 고려(연못, 저수지, 실개천과 수로, 해자), 숲띠와 마을숲(방풍림, 비보숲, 당산목, 상징수목), 자연재료의 이용(水, 木, 石, 土) 등</p> <p>*외부로 바라볼때 개방적인 경관과 외부에서는 폐쇄된 경관, 문루와 정자, 당산목 등 경관관찰점, 마을 뒷산으로 위요되고 sky-line이 자연스러운 마을경관과 환경심리적으로 안정된 조망권</p> <p>*8景과 5山5水 같은 승경지의 광역경관상, 민간신앙과 놀이, 세시풍속 등 생활 문화경관상</p>

3. 결 론

우리 선조들은 자연에 대한 절제감과 생태환경의 질서 그리고 문화환경 자원을 증시하는 가치관(수용력+건강성+지속성)을 결합하여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속성과 건전성을 구축하는 정주지(마을, 읍성)를 경영하였는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주지를 산수진경하며 배산임수+장풍득수+전착후관하는 길처에 설정하고, 상징장소(진산)를 연결하는 축선에 생태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합일공간(地理+生利+山水+人心=定住地)을 완성함으로써 장소변영적 福居地로서의 안정된 삶터(토지수용력+생태환경=자족적 공동체)를 경영하는 환경설계 원칙이 발견된다.

전통과학으로 이해되는 풍수지리 관점에서의 입지선정과 자연순응형 토지이용, 유연성이 확보된 주거밀도 조정과 동선체계, 에너지 보존과 환경심리적 안정성을 반영한 정주지 조성의 틀(배후지+주거지+경작지) 속에서 풍류공간이나 강학처, 신앙 의례처를 경영하며, 통혼권이나 分財로 영역을 넓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삶터의 경영에는 마을과 살림집의 좌향, 미기후의 고려, 점적, 선적, 면적 숲띠 조성, 자연재료의 완벽한 이용 등 환경적 건전성과 지속성 요소가 다양하게 반영되었고, 內庭과 外庭, 內園과 外園, 內苑과 外苑을 결합하는 경관생태학적 접근 등 활력을 주고 감흥을 유발시키는 생태마을이 된다. 특히, 배경

(背景 : 뒷산, 후원)→근경(近景 : 안길, 살림집 마을)→중경(中景 : 바깥들, 어귀길, 하천)→원경(遠景 : 앞산)의 경관 체험이라든가, 식생이행대(ecotone), 생태통로(eco-corridor), 생물서식처(biotope) 구축을 통하여 생태적인 마을공원(ecological and community park) 창출과 같은 환경설계기법이 추출된다.

마을의 풍요와 부를 기원하면서 정신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행동양식으로 전승되는 민간신앙과 놀이문화는 자연을 무대로 인간이 합일, 접속되는 공동체 삶의 평형원리를 반영하였는바, 相和, 相生의 틀 속에서 적합성과 항상성을 반영한 건전한 공동체가 구축되는 사회적 지속성으로 표출된다.

표 2. 전통정주지 환경설계에 반영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 구현원칙과 체계

구분	지속성 구현 원칙	지속성 구현 체계
사회적 지속성	*장소성, 공동체 구현 *자족적, 문화적 지속성 구축	*동족과 이족 또는 계층간 유기적인 공간계획과 동선체계(위계+영역+장소성) (생성→풍요→초월→회귀의 공간경영), 두레, 향약, 대동계, 노동요 등 전승 *민간신앙, 놀이, 강학처, 제례처 등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 전승 (자연+상징 문화공간+인조 문화공간, 실존+이상향 공간), 물길과 마을길, 생활편의시설
경제적 지속성	*주거+생산+상업+배후지 *유보공간, 재해방지	*주거지, 생산지(논, 밭), 시장, 배후지(빨감, 경승지, 묘역 등) (지리+생리+산수+인심이 결합된 복거지), 행정, 군사, 교통, 생활의 요충지 *주거지, 생산지의 유연성(수용력 확보), 홍수 등 재해, 재난방지(안전성 확보), 외부로부터의 은폐성, 주민의 보호, 방어(군사, 행정기능)
환경적 지속성	*자연순응형 입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자연재료의 활용 *생태적 가치관에 부응하는 환경조성	*풍수지리에 입각한 토지이용, 자연환경의 보존(배산임수+장풍득수, 山+水+方位+人, 北高南低, 내원+외원, 경관생태+생태마을), 광역경관상, 경관관찰점 경영 *에너지 보존 및 자원 재활용, 미기후, 물순환 체계, 낮은 entropy 체계구축 *녹지(환경림, 자연녹지+생산녹지), 생태적 네트워크(점, 선, 면) 구축, 식생이행대(ecotone), 생태통로(eco-corridor), 생물서식처(biotope) 등

참 고 문 헌

- 김한배, 1992, 한국전통마을과 읍성의 경관성, 도서출판 조경, pp.260-280
 박광재 외2, 2002, 한국전통주거의 계획개념을 응용한 공간구성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pp.16-59
 신상섭, 2000, 전통마을 공간구성에 작용된 환경설계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권 1호, pp.20-31
 이규인, 2003, 하회마을 지속성에 관한 기초연구, 전통생태세미나 제4집, 서울대환경대학

원, pp.79-91

한필원, 2003, 한국 전통마을의 환경친화성, 전통생태세미나 제4집, 서울대환경대학원,
pp.64-78

<http://kr.encycl.yahoo.com>, <http://www.nagan.or.kr>, <http://www.parandeul.co.kr>, <http://www.piago.com>

Manchester 2020, 1996, 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